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 개념도 연구*

홍 수 현

한림대학교 융합교육지원센터
연구교수

최 윤 정†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개념도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습전략검사 결과 상위 30%와 진로사고검사 결과의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진로목표추구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추출된 66개의 진로행동에 관한 진술문에 대해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및 실천도 평정을 실시하였고, 다차원척도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목표추구 행동에 관한 개념도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 실행 자원 지향-진로목표 접근 전략의 두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진로-학습 계획 수립 및 실행’, ‘자기주도적 전공 학습’, ‘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 ‘직업탐색활동 기반 진로 재탐색’, ‘진로탐색활동 기반 자기이해’, ‘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 ‘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의 7개 군집이 도출되었다. 중요도 평정 결과, ‘자기주도적 전공 학습’ 군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 대비 실천도 격차는 외부 자원 활용 중심의 군집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발달 동기부여 이론(MTD)의 목표 참여 및 재조정 전략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으며, 대학생 진로상담에서 진로 선택과 실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주도적 대학생, 진로목표추구 행동, 개념도 연구방법, 생애주기발달 동기부여 이론

* 본 연구는 홍수현(2025)의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 추구 행동에 대한 개념도’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최윤정,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길 1, Tel : 033-250-6654

E-mail : cyjmom@kangwon.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오늘날 대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불확실성과 변화가 일상화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복합적 발달 과제로 이해된다.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직업 안정성과 조직 소속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진로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김현우, 2023; Vyas, 2022),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안정적 고용보다 자율성, 성취감, 일·삶의 균형을 중심으로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박민진 등, 2021; 장예원, 이영민, 2024). 그러나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는 동시에 정보 과잉, 예측 불가능한 채용시장,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진로 준비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신정아, 김장희, 2021; 우예영, 김동일, 2020), 이는 삶의 방향성 전반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Arnett (2000)은 청년기 중에서도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를,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과 일, 삶의 방향을 가장 폭넓게 탐색하는 발달 단계로 보았다. 이러한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혼란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송민선, 정현식, 2023). 따라서 청년기 대학생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진로목표를 어떻게 선택하고 실행해 나가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지원하는 진로상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생의 진로 선택과 실행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Lent et al., 1994)이 있다. SCCT는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그리고 맥락적 지지와 장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 행동이 형성된다고 설명하며,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이 이 관점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해 왔다(김기승, 2012; 김지연, 이기학, 2014; 노운신, 정철영, 2016). 또한 전미리와 김봉환(2018)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부모의 진로지지 및 성격 요인을 매개하여 진로탐색 목표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진로탐색 목표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SCCT 기반 연구들은 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대학생이 진로목표를 설정한 이후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통해 목표를 추구하고 조정해 나가는지, 즉 목표 추구의 과정적·행동적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SCCT의 한계를 보완하는 관점으로 생애주기발달 동기부여 이론(motivational theory of life-span development [MTD]; Heckhausen et al., 2010)이 유용하다. MTD는 개인이 생물학적·사회적 제약과 발달적 마감기한(예, 졸업, 취업 시점) 속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목표 참여와 목표 이탈·재조정을 순환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발달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한다. MTD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Lechner 등(2016)은 독일과 폴란드 청년 1,059명을 대상으로 진로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목표 조절 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목표 이탈보다 목표 참여 전략(예, 진로 목표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헌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Wrosch 등(2000)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효과적인 목표 추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는데, 청년기에는 목표 참여 전략이 삶의 만족

도와 높은 관련을 보인 반면 중·노년기에는 목표 이탈 후 긍정적 재해석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구권 연구들은 진로 목표 추구 전략의 발달적·시간적 맥락을 조명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취업을 위한 스펙 관리와 학점 취득을 중시하는 한국 대학생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김혜영, 이진형, 2021; 진예민 등, 2021)에서 서구의 목표 참여 전략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특히 서구 연구에서 확인된 ‘지속적 목표 참여’가 한국 맥락에서는 스펙 축적 및 자격 관리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목표 ‘이탈’ 역시 진로 전환 또는 재탐색이라는 문화적으로 상이한 형태를 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참여와 조절 행동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Deci와 Ryan(1985, 2000)의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고 자기조절적 행동이 안정적으로 실천된다고 설명함으로써, MTD와 SCCT를 동기적 측면에서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기결정적 동기가 학습과 진로 행동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역량이 곧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 Knowles, 1975)이며,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외부 지시 없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선택하며 지속적으로 점검·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강명숙, 방은령, 2014; Knowles, 1975).

급변하는 환경에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자기주도성이 강조되고 있다(강명숙, 방은령, 2014; 박민정, 2021; 성은

모, 최효선, 2016; De Bruin, 2011; Heckhausen et al., 2010; Morgan & Osborn, 2025). 자기주도성은 성인교육 분야에서 Knowles(1975)가 제안한 자기주도학습에서 비롯되었으며,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성은 Deci와 Ryan(1985, 2000)의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설명하는 자기결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기결정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외적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치와 선택에 의해 조절되는 정도로 개념화한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할 때 자기결정적 동기와 내재화가 촉진되고 학습 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된다. 이러한 자기결정적 동기에 의한 내재적 동기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의 발달을 촉진한다(김아영, 2010; 이지혜, 2010). 즉, 자기결정성은 동기의 질적 측면에서 자율적 동기를 강조하는 개념이며, 자기주도학습은 이러한 동기가 학습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로발달 맥락에서 자기주도성은 단순한 학습 역량을 넘어 진로목표 설정, 탐색, 실행, 조절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자기주도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목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행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하는 경향이 높은(우성민, 이진구, 2020) 반면, 자기주도성이 낮은 학생은 진로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실행 전략 수립이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진로적응성이 낮아지는 경향(노운신, 정철영, 2016; Lechner et al., 2016)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주도적 태도를 형성한 신입사원과 3년 이상의 직장인은 경력개발과 직무몰

입, 직무만족 등 다양한 진로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성민, 이진구, 2020; 최안나, 탁진국, 2021).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주도성과 진로목표추구 행동의 연결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학업 영역 모두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진로목표추구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실천적 근거에 기반한다. 첫째, 진로목표추구 행동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고 다양하게 발현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개념도 연구방법의 취지에 부합한다(Kane & Trochim, 2007). 진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목표 설정이나 실행 전략 자체가 부재하거나 미분화되어 있어 행동의 개념적 구조를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들은 목표 설정, 실행, 점검, 재조정의 자기조절 전략이 체계적으로 나타나 행동의 내적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둘째, 자기주도성이 높은 집단의 행동 구조를 먼저 규명함으로써, 이후 자기주도성이 낮거나 진로목표가 불명확한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준거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바람직한 진로목표추구 행동’의 전형적 구조를 경험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진로상담 현장에서 어떤 행동 영역의 개발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진단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국 대학생 고유의 진로목표추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행동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개념도 연구는 참여자의 실제 언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혼합연구방법으로(Kane & Trochim, 2007), 질적 자료 수집의 풍부함과 다변량 통계 분석의 엄밀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진로행동처럼 심리적 의미와 구체적 행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상을 참여자 중심으로 탐색하고 그 구조를 시각화하는 데 적합하며(Johnsen et al., 2000), 기존 양적 연구가 변인 간 관계 규명에 집중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론적 접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진로목표추구를 위해 인식하고 있는 행동들을 진술문으로 수집한 후, 이를 군집화하여 행동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각 요소에 대해 중요도와 실천도를 평정함으로써 진로 행동의 인식과 실천 간의 간극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진로와 학업 두 영역 모두에서 자기주도적 특성을 지닌 대학生の 진로목표추구 행동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대학에서 직업세계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기 대학생 대상의 구체적인 진로상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의 진로목표추구 과정에서 실천하는 행동 요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자기주도적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목표추구 행동들로 탐색된 군집별 중요도와 실천도는 어떠한가? 셋째, 도출된 진로목표추구 행동에 대한 진술문별 실천도와 중요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참여자

개념도 연구는 다수 참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종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혼합연구방법론으로, 연구 참여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 발달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였다.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며, 지속적으로 자기점검과 조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능력으로 효과적인 진로 발달의 핵심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강명숙, 방은령, 2014; 최안나, 탁진국, 2021; De Bruin, 2011; Kim & Kim, 2018).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진로목표의 명확성이나 실행 전략이 부족한 반면, 자기주도적 대학생은 목표 설정, 실행, 점검 및 재조정의 자기조절 전략이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으로 진로목표 성취 행동의 실천적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CTI])와 학습전략검사(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2nd [MLST-II]) 결과를 활용하였다. 진로사고검사는 Sampson 등(1996)이 개발한 역기능적 진로사고 측정 도구로, 국내에서는 이재창 등(2003)이 번안·표준화하였다.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의 3개 하위척도, 총 48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4, 하위척도별 .74~.91로 보고되었다(이재창 등, 2003). 학습전략검사는 박동혁(2008)이 개발한 대학생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다차원적 평가 도구로, 성격 특성(5개 척도), 동기 특성(4개 척도), 행동 전략(4개 척도)의 3개 영역, 총 13개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자기주도학습지수(Learning Quotient [LQ])는 13개 하위척도 점수를 종합하여 산출되는 표준점수(평균 100, 표준편차 15)이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2이며, 학업성취, 진로결정 수준 등과의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박동혁, 2008; 박연정, 강현주, 2024).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은 진로와 학업 두 영역 모두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며 자기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므로(Knowles, 1975), 이를 조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진로 인지 장벽의 낮음(CTI)과 학습 전략 활용의 높음(MLST-II)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집단의 선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CTI 점수가 낮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인지적 장벽이 적어 자기주도적 진로 실행이 용이하며(Hasan, 2015; Sampson et al., 1996), MLST-II의 LQ가 높을수록 계획·조직화, 자기점검 등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높은 수준에서 활용한다(박동혁, 2008; 박연정, 강현주, 2024). 두 도구의 결합은 Kim과 Kim(2018)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취업준비행동과 정적으로 연관됨을 확인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현재 국내에 '자기주도적 진로행동'을 진로와 학업 두 영역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표준화된 단일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검사의 결합은 본 연구의 정의를 조작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진로사고검사는 진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 관련 부정적 사고와 인지적 장벽이 적고 보다 효율적인 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시사한다(Sampson et al., 1996).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역기능적 사고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의 어려움이 적고 진로 관련 적응 수준이 높은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Hasan, 2015; Sampson et al., 199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낮은 학생은 진로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목표 실행과 관련된 인지적·동기적 자원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진로주도성(진로와 학업 영역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행동하는 특성)과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학습전략검사는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박동혁, 2008), 자기주도학습지수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습 전략 사용과 내재적 동기 수준을 보인다(박연정, 강현주, 2024).

참여자 선정은 A 지역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해당 대학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사고검사와 학습전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검사 모두를 완료한 학생은 총 810명이었다. 이 중 진로사고검사 T점수 하위 30%(T점수 32점 이하)이면서 동시에 학습전략검사 자기주도학습지수(LQ) 상위 30%(LQ 113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127명이었다. 연구자는 이 127명 전원에게 연구 참여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회신한 학생들에게만

유선으로 연구 목적과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후 연구 절차와 동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송부한 뒤 서면 동의서를 수령하였다. IRB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를 함께 검토하며 다중 동의 절차를 통해 연구 목적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 참여 철회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명을 최종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으며, 기본 연구 과정 참여자에게는 50,000원을, 추가 피드백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개념도 연구 절차(민경화, 최윤정, 2007; Kane & Trochim, 2007)에 따라 면담 참여자, 진술문 통합 및 피드백 과정 참여자,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평가 참여자로 구분하였다.

면담 참여자

면담에는 총 16명의 자기주도적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4.75세였으며, 성별은 남학생 7명, 여학생 9명이었다. 학년은 3학년 8명, 4학년 8명이었고, 전공은 인문사회, 이공계, 융합전공 등 다양한 학과에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 전공의 경우, 같은 전공은 없었으며 인문학(중국어, 영어, 철학), 사회과학(심리, 법, 정치행정, 광고홍보, 디지털미디어, 글로벌비즈니스), 의과학 융합, 첨단공학(반도체, IoT, IT,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자연과학(청각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각 1명씩 참여하였다. 총 16명의 연구참여자 진로사고검사 종합점수(T점수) 평균 27.88점이며, 표준편차는 3.72이다. 학습전략검사 자기주도학습지수(LQ)의 평균은 118.01점이고, 표준편차는 7.31이다.

진술문 통합과 피드백 과정 참여자

면담으로 도출된 진술문은 연구자와 상담전공 박사 1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1차 통합하였다. 이후 국어국문학 박사 1인, 한국어 강사 1인,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문장을 정제하였다. 또한 면담 참여자 3명과 상담전공 교수 및 박사 2인에게 5점 척도 평정과 수정 의견을 받아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평가 참여자

진술문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실천도 평정에는 면담 참여자 16명 중 15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진술문을 자유롭게 분류한 뒤, 각 진술문에 대해 중요도와 실천도를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 면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3명은 진술문의 의미와 군집화 방식에 대한 심층 의견을 제공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개념 구조를 밝히고자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방법에 근거하였다. 개념도 방법은 참여자들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혼합연구 방법으로, 질적 자료 수집과 다변량 통계 분석을 결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개념화하는 접근법이다(Johnsen et al., 2000). 이 방법은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언어를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통해 개념적 구조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의 복합적인 진로목표추구 행동을 참여자 중심으로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

연구 절차는 다음의 5개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초점질문을 개발하였다. 대학생의 발달 특성과 진로 및 학습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연구자가 1차 초점질문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초점질문은 개념도 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전공 교수 1인과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4인에게 내용 타당성과 표현 적절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8개의 초점질문 후보를 개발하여 개념도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3인에게 평가를 요청하였다. 평가 기준은 용어 사용, 간결성, 의미 전달, 응답 용이성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시키고 추상적 표현을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하여 6개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동일한 전문가 3인의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나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___을 하고 있다.”를 초점질문으로 확정하였다. 면담은 최종 확정된 초점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추가 탐색 질문(예, 진로 탐색을 위한 대내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진로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나 활동이 있다면?)을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초점질문 개발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개념도 연구의 적절한 인원을 고려하여(최윤정, 2019; Kane & Trochim, 2007; Trochim, 1989) 총 16명의 연구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둘째,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서는 자기주도적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참

여자들의 진로목표추구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40분에서 90분 사이였다. 면담 녹화본을 전사하여 총 220개의 초기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자와 전문가 집단(상담전공 교수 1인, 상담전공 박사 2인)의 검토 및 통합 과정을 거쳐 74개로 축약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 3명과 동일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삭제하고 최종 66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셋째, 진술문 구조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참여했던 16명 중 일정상 참여가 어려운 1명을 제외한 15명이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66개 진술문을 유사성에 따라 자유 분류하는 방식으로 카테고리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진술문에 대해 진로목표추구 행동에서의 중요도와 실천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유사성 분류 결과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는 평균 6.1개(5-9개)였다.

넷째, 개념도 분석 단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에 관한 진술문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동일 범주로 묶은 진술문은 0, 다른 범주로 묶은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고, 15명의 개인별 유사성 파일을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Group Similarity Matrix [GSM])를 제작하였다. 이어서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가지고 IBM SPSS Statistics 29.0을 이용하여 ALSCAL 방법으로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척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에 관한 적절한 차원의 수와 의미를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진술문의 차원 상 좌표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Ward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에 관한 최종 진술문의 중요도와 실천도를 평정한 자료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개념도 해석 단계에서는 도출된 개념도의 차원과 군집을 해석하였다. 먼저, 좌표상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의 의미를 검토하여 두 개의 차원을 설정하였다. 이어 각 군집의 진술문을 의미 단위로 묶어 검토하고, 참여자가 부여한 범주명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군집명을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 참여자 일부와 전문가 집단(상담전공 교수 및 박사급 상담가)의 논의를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최종 차원명과 군집명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의 특성상 질적 방법과 양적 분석을 통합하여 진행되므로,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층적 검토 절차를 거쳤다(Erlandson, 1993; Lincoln & Guba, 1985; Merriam, 1988; Miles & Huberman, 1994). 첫째, 참여자 확인을 통해 진술문의 적절성과 표현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대학생 3명에게 진술문 목록을 송부하여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고,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진술문을 정제하였다. 둘째,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절차적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초점질문 개발 및 진술문 통합·구조화·군집명명 단계에서 상담전공 교수와 박사급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분석에 반영하였다. 셋째, 내적 타당도는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DS])에서 산출된 스트레스 값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 값은 .318로, 개념도 연구의 권장 범위인 .205~.365(Kane & Trochim, 2007)에 해당하여 분석 결과의 구조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넷째, 군집 수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와 참여자 유사성 분류에서 나타난 범주 수(평균 6.1개)를 고려하여 최종 7개 군집을 확정하였다. 이는 군집 간 의미 구분성과 해석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참여자 및 전문가 검토에서도 적절성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신뢰도는 Trochim(1993)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다. 반분 신뢰도 분석에서 홀수 집단(N=7)과 짝수 집단(N=8)의 비유사성 행렬 간 상관계수는 $r=.431(p<.01)$ 이었으며, Spearman-Brown 보정계수는 .600으로 Kane와 Trochim(2007)이 제시한 수용 기준(.500 이상)을 충족하였다. 또한 평정 신뢰도 분석 결과 중요도의 Cronbach's α 는 .683, 실천도의 Cronbach's α 는 .764로 나타나 모두 수용가능한 수준이었다.

결 과

개념도 분석을 위해 실시한 다차원척도분석(MDS) 결과 스트레스 값은 .318, 결정계수(R-squared [RSQ])는 .502로 나타나 Kane와 Trochim(2007)이 제시한 적정 범위를 충족하여 해석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차원 구조를 설정하였으며, x축은 '진로 실행 자원 지향(내면 자원 기반 ↔ 외부 자원 활용)', y축은 '진로목표 접근 전략(탐색·성찰 중심 ↔ 구체화·실행 중심)'으로 명명하였다. 가로축은 '진로 실행 자원 지향'으로 명명하였

는데, 이는 단순히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로행동의 실행 초점과 방식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좌측(내면 자원 기반)에는 자기관리, 내적 성찰, 계획 수립, 전공 학습 등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역량을 자원으로 삼아 목표에 접근하는 행동들이 위치하였으며, 우측(외부 자원 활용)에는 교내외 활동 참여, 멘토링, 실무 경험, 대외활동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는 행동들이 위치하였다. 이 차원의 양극단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학생들은 상황과 발달 시점에 따라 두 방향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로 행동을 조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Heckhausen 등(2010)의 MTD 이론에서 1차 통제(환경 변화를 통한 목표 달성)와 2차 통제(내적 조절을 통한 목표 유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는 관점과 일치하며, 진술문의 분포 양상이 이러한 두 실행 방식의 개념적 구분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세로축은 '진로목표 접근 전략'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MTD 이론(Heckhausen et al., 2010)에서 제시하는 목표 선택 후 목표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과정과, 필요시 목표를 조정·재구성하는 과정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상단(구체화/실행 중심)에는 진로목표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행하는 행동들이 위치하며, 이는 청년기 발달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논의되는 목표 선택과 전념, 목표 참여의 강조점과 개념적으로 맞닿아 있다(Heckhausen et al., 2010). 하단(탐색/성찰 중심)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 이해, 진로 방향의 재탐색, 시행착오를 통한 성찰과 성장 등 기존 목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데 가까운 행동들이 분포하였

다. 예를 들어, 군집 3(시행착오 기반 성장)과 군집 4(직업탐색활동 기반 진로 재탐색)가 하단에 위치한 것은, 이 군집에 속한 학생들이 단순한 정보 탐색을 넘어 진로목표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재구성하는 조절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로축은 진로목표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식이 목표 실행 중심에서 목표 재설계 중심까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으로, MTD에서 논의되는 목표 참여, 목표 이탈 및 새로운 목표로의 재참여가 진로목표추구 전반에서 반복되는 순환적 과정을 구조적으로 가시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종 7개 군집은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첫째, 텐드로그램 분석 결과와 참여자들의 자유 분류에서 나타난 범주 수 평균(6.1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6개 군집으로 통합할 경우 일부 군집 내 진술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이질적으로 결합되어 군

집의 개념적 순수성이 저해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6개 군집 구조에서는 군집 1과 군집 2의 일부 진술문이 통합되었으나, 이들은 행동의 성격(순수 전공 학습 vs. 진로-학업 통합 계획)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에서 분리가 적절하였다. 셋째, 참여자 3명 및 상담전공 전문가 집단의 검토에서 7개 군집의 내용 타당성과 개념적 배타성이 확인되었다.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 개념도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념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개념도는 다차원척도분석(MDS)을 통해 산출된 각 진술문의 좌표값과 군집분석 결과로 도출된 7개의 군집, 그리고 두 개의 해석을 위한 차원명을 통합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들이 공간 상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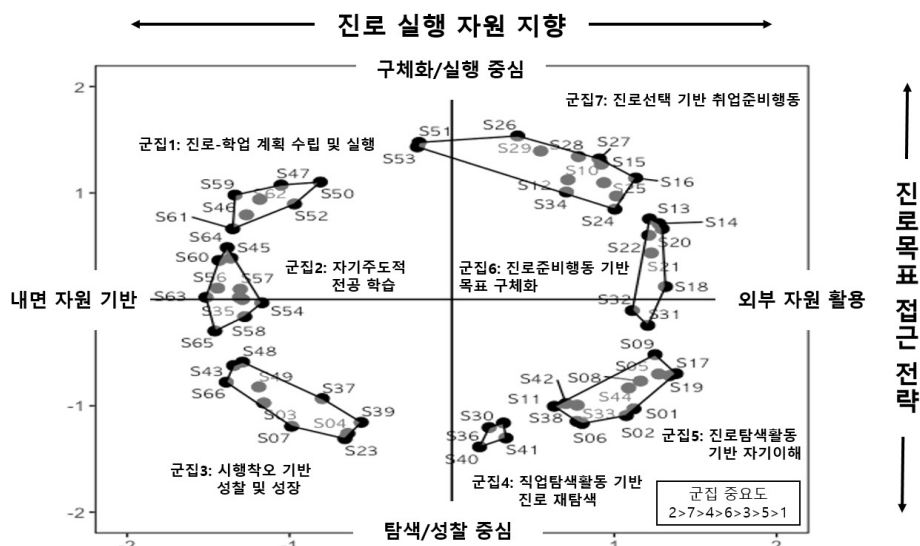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에 관한 개념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념도 상의 거리는 진술문 간 인식의 유사성을 반영한다. 즉,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진술문과 군집은 유사한 행동 개념으로 분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di, 2006).

개념도 상단(구체화/실행 중심)에 진술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것은 자기주도적 대학생이라는 참여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들은 탐색적 행동보다 목표 지향적·실행 중심적 행동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언어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MTD 이론에서 청년기가 목표 참여와 실행 전략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라는 관점(Heckhausen et al., 2010)과도 부합한다.

개념도의 X축은 ‘진로 실행 자원 지향’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자기관리·내적 성찰과 같은 내면 자원 기반이, 우측에는 교내·외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외부 자원 활용이 위치하였다. Y축은 ‘진로목표 접근 전략’을 기준으로 하단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 이해와 성찰을 강조하는 탐색/성찰 중심, 상단에는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화/실행 중심이 위치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원의 교차 구조에 따라 총 66개의 진술문이 7개 군집으로 범주화되었다.

군집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집 1(진로-학업 계획 수립 및 실행)과 군집 2(자기주도적 전공 학습)는 좌상(2사분면)에 위치하였고, 군집 3(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은 좌하(3사분면)에 분포하였다. 군집 4(직업탐색활동 기반 진로 재탐색)과 군집 5(진로탐색활동 기반 자기이해)는 우하(4사분면), 군집 6(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와 군집 7(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은 우상(1사분면)에 위

치하였다. 이 중 군집 1과 2는 진술문들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해당 행동들을 상호 유사하게 인식한 반면, 군집 7은 진술문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여 세부 전략적 행동의 다양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도 상단에는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적 행동이, 하단에는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통해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행동이 주로 분포하였다.

각 군집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진로-학업 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명명하였고, 이 군집에는 학업과 진로 목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동들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중간 목표를 순차적으로 달성한다.”, “시험준비를 위해 사전에 시간 계획을 세운다.”와 같은 진술이 해당된다. 이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진로 준비를 분리하지 않고, 계획적 학업 관리가 곧 진로 성취로 이어진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군집 2는 ‘자기주도적 전공 학습’으로 전공 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학문적 성취를 쌓는 행동을 반영한다. 대표 진술문으로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전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기억에 오래 남긴다.” 등이 있다. 이 군집을 구성하는 행동들은 교수자나 외부 프로그램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의 인지적 전략(암기전략, 마인드맵, 개념 연결 등), 정서 조절(스트레스 해소,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시간 관리 등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지적 자원을 동원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멘토·선배와의 상호작용 등 외부 자원 활용 행동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군집 3은 ‘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 집단으로, 이 군집은 진로목표추구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실패를 통해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한다.”와 같은 진술문이 속해 있으며, 이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학습의 자원으로 전환함을 보여준다. 한편 “대외 활동에 선발되지 못할 것 같아도 일단 지원한다.”는 진술문은 단순한 시도 행동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선발 실패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미리 예상하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함으로써 시행착오의 경험 자체를 성장의 자원으로 삼으려는 태도, 즉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지적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 진술문이 단순 시도 행동이 아닌 시행착오 기반의 성찰·성장 행동으로 인식되었음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군집 4에는 다양한 직업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진로 방향을 재조정하는 행동이 포함되었고 군집명은 ‘직업탐색활동 기반 진로 재탐색’이다. “학교 내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 경험하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실무경험을 통해 선택했던 진로를 변경한 적이 있다.”와 같은 진술문은 학생들이 실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거나 수정해 나감을 시사한다.

군집 5는 ‘진로탐색활동 기반 자기이해’로, 다양한 탐색 경험을 통해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행동을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의 진로 준비 상태를 인식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여

러 활동을 찾아서 한다.”와 같은 진술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자기 이해의 계기로 삼아 진로 의사결정을 심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군집 6은 ‘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로 명명하였고, 추상적인 진로 목표를 구체적 실행 행동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컨대 “방학 중 대기업이나 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한다.”, “나의 진로목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다.”와 같은 진술문들이 속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학생들이 목표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구체적 준비 과정을 밟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군집은 군집 2의 전공 학습 중심 내면 자원 활용과 달리, 인턴·봉사·해외 경험 등 외부 환경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추상적 진로 목표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군집 7은 ‘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이며,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실행과 자기조절 행동을 포괄한다. “대외 활동 지원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다.”, “관심 분야의 동향(예, 구인 공고, 취업 정보)을 꾸준히 살핀다.”와 같은 진술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군집의 분산된 분포는 학생들이 실행 전략을 다양하게 해석·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집 6이 경험 축적을 통한 목표 구체화에 초점을 둔다면, 군집 7은 포트폴리오 작성·자격증 준비·취업 정보 탐색 등 취업 시장에 직접 대응하는 전략적·다각적 실행 행동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와 같이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은 학업과 진로의 통합, 외부 자원 활용과 내적 자기조절, 그리고 탐색/성찰과 구체화/실행의 균형적 조합 속에서 구조화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목표 달성이 단일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군집별 중요도 및 실천도 분석

평정 과정의 연구 참여자 15명이 실시한 진술문 중요도와 실천도 평정 결과를 군집별로 평균화한 값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은 전반적인 진로목표추구 행동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실천 수준에는 군집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군집 2(자기주도적 전공 학습)는 중요도와 실천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컨대 “수업에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한다.”와 같은 행동들은 참여자들로부터 학업 성취와 진로 준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로도 높은 빈도로 실천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전공 학습과 학업 계획을 진로 성취를 위한 필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군집 6(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와 군집 7(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은 중요도 평균에 비해 실천도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예컨대 “인턴경험이나 대외활동을 통해 나에게 맞는 진로를 구체화한다.”, “선택한 진로에 맞추어 경력을 쌓고 있다.”와 같은 행동들은 학생들에게 진로 준비의 필수적 단계로 인식되었으나,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부담감이나 장기적 노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천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끝으로, 군집 3(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의 중요도와 실천도가 모두 중간 수준에 위치하였다. “계획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한다.”와 같은 진술문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서 의미 있게 평가되었으나, 즉각적 성과로 직접 환원되기 어려운 행

동의 특성상 구체화/실행 중심 군집들에 비해서는 다소 제한적인 실천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전공 학습과 학업 관리 등 개인 내부에서 수행되는 직접적 활동은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는 반면, 외부 자원을 활용한 탐색 활동이나 장기적 실행 전략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실천 수준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 진로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인식과 행동 간 간극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외부 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목표의 중·장기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체계적 지원과 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술문별 중요도와 실천도의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 수준에서의 중요도와 실천도 평정 결과, 일부 진술문은 두 지표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를 들어 “수업에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한다”,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와 같은 전공 학습 관련 행동은 중요도와 실천도 평균이 모두 4.8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 동기를 강화한다”와 같은 항목도 높은 평가를 받아,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준비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학업 관리 행동을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진로 성취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중요도에 비해 실천도가 낮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진술문도 확인되었다. 표 2는 중요도와 실천도 차이가 큰 상위 10개 진술문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가운데 “방학 중 대기업이나 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한다”(차이=1.40)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어 “자

표 1. 군집별 중요도 및 실천도

군집 및 진술문		M(SD)	
		중요도	실천도
군집 1: 진로-학업 계획 수립 및 실행 (N=7)		4.06(0.42)	3.63(0.69)
62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성적을 관리한다.	4.60(1.06)	4.13(1.25)
52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중간 목표를 순차적으로 달성한다.	4.40(0.63)	4.20(0.77)
50	진로목표를 위해 중장기 계획(한 달, 일 년)을 세운다.	4.13(1.13)	4.00(1.20)
46	매일 대략적인 틀을 짜놓고 계획을 실행한다.	4.13(1.06)	3.93(1.22)
61	시험준비를 위해 사전에 시간 계획을 세운다.	4.13(1.06)	3.87(1.36)
47	계획이나 목표 설정 관련하여 하루, 주, 월 단위로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고 있다.	3.60(1.24)	2.67(1.59)
59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방학 때 다시 공부한다.	3.40(1.35)	2.60(0.99)
군집 2: 자기주도적 전공 학습 (N=11)		4.46(0.37)	4.18(0.48)
57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4.93(0.26)	4.80(0.41)
56	수업에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한다.	4.93(0.26)	4.87(0.35)
63	다양한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 동기를 강화한다.	4.80(0.41)	4.67(0.49)
54	다양한 것을 배우고 공통점을 찾아 더 깊이 공부하려고 노력한다.	4.67(0.49)	4.40(0.83)
65	힘들 때 나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4.67(0.49)	4.20(1.26)
45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모두 실천하려고 한다.	4.47(0.74)	3.80(1.08)
64	시간 관리를 통해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분배한다.	4.27(1.16)	3.60(1.40)
60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나한테 맞는 학습전략(예, 암기전략, 마인드맵, 과제 검토 등)을 활용한다.	4.27(1.03)	4.00(1.13)
35	기대만큼 전공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전공을 포기하지 않는다.	4.20(1.08)	4.27(0.88)
55	현재와 미래에 유용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한다.	4.00(1.25)	3.87(1.30)
58	전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기억에 오래 남긴다.	3.87(1.06)	3.47(1.13)
군집 3: 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 (N=10)		4.13(0.32)	3.73(0.46)
4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4.73(0.59)	4.40(0.63)
48	실패를 통해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한다.	4.47(0.74)	4.27(0.70)
23	대외 활동에 선발되지 못할 것 같아도 일단 지원한다.	4.33(0.90)	4.07(0.96)
43	노력하는 사람을 보며 동기를 부여받는다.	4.27(0.80)	3.87(1.30)
66	휴학을 통해 재충전한 후 학교생활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었다.	4.07(1.03)	3.93(1.33)

표 1. 군집별 중요도 및 실천도

(계속 1)

	군집 및 진술문	M(SD)	
		중요도	실천도
49	계획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한다.	4.07(0.96)	3.47(0.83)
37	대외활동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합격방법을 익혔다.	4.07(0.70)	3.13(1.19)
39	리더 경험(예, 학생회 임원 등)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며 배우고 성장했다.	3.87(1.19)	3.13(1.30)
3	교내외 활동은 한 번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최소 세 번은 해보려고 한다.	3.73(0.96)	3.67(1.18)
7	수업이나 활동이 나에게 맞지 않아도 '좋아해 보자'라고 생각하며 여러 번 시도한다.	3.73(0.80)	3.33(0.98)
군집 4: 직업탐색활동 기반 진로 재탐색 (N=4)		4.24(0.29)	3.76(0.43)
36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들 때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업이나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53(0.64)	4.07(1.16)
40	학교 내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 경험하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4.33(0.82)	4.27(1.16)
41	휴학 동안 사회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3.80(1.15)	3.60(1.18)
30	실무경험을 통해 선택했던 진로를 변경한 적이 있다.	3.73(1.28)	3.40(1.40)
군집 5: 진로탐색활동 기반 자기이해 (N=13)		4.10(0.39)	3.84(0.40)
5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한다.	4.87(0.35)	4.60(0.63)
1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다.	4.53(0.83)	4.00(0.85)
8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여러 활동을 찾아서 한다.	4.47(0.64)	4.20(0.86)
6	진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시도해본다.	4.47(0.64)	4.07(0.80)
38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의 진로 준비 상태를 인식한다.	4.33(0.62)	4.00(1.00)
33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한다.	4.20(0.86)	3.93(0.96)
44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진로를 준비하며 도움을 받는다.	4.20(0.56)	3.53(1.13)
11	직업 체험(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을 통해 선택한 진로가 내 적성과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4.13(0.99)	3.27(1.28)
2	진로목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상담한다.	4.07(0.80)	3.40(0.83)
17	학교 및 학과에서 진행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에 참여한다.	4.07(0.59)	3.33(1.11)
9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흥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다.	3.93(0.96)	3.80(1.15)
19	다양한 교내외 멘토링에 참여한다.	3.93(0.88)	3.13(1.30)
42	국내외 여행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힌다.	3.87(1.25)	3.60(1.59)

표 1. 군집별 중요도 및 실천도

(계속 2)

군집 및 진술문		M(SD)	
		중요도	실천도
군집 6: 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 (N=8)		4.20(0.30)	3.36(0.36)
18	다양한 대외 활동(공모전, 진로 아카데미, 박람회 등)을 찾아 참여한다.	4.73(0.46)	3.73(0.96)
14	인턴경험이나 대외활동을 통해 나에게 맞는 진로를 구체화한다.	4.47(0.74)	3.80(1.08)
22	대외활동 사이트에서 나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활동한다.	4.33(0.72)	3.53(1.19)
20	방학 중 대기업이나 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한다.	4.20(0.77)	2.80(1.15)
13	졸업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구체적으로 진로를 구상한다.	4.13(1.06)	3.60(1.12)
32	교환학생, 인턴 등의 경험이 진로목표를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4.00(1.00)	3.27(1.28)
31	교환학생(어학연수)을 통해 해외 진출 경험을 한다.	3.87(1.19)	3.07(1.79)
21	나의 진로목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다.	3.87(1.13)	3.07(1.58)
군집 7: 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 (N=13)		4.28(0.47)	3.68(0.66)
27	희망 진로와 관련된 실무(인턴, 현장실습, 학부 연구생, 아르바이트 등)에 직접 참여한다.	4.87(0.35)	4.40(0.74)
10	선택한 진로에 맞추어 경력을 쌓고 있다.	4.73(0.46)	4.00(0.93)
26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한다.	4.67(0.82)	4.13(0.83)
15	관심 분야의 동향(예, 구인 공고, 취업 정보)을 꾸준히 살핀다.	4.60(0.51)	4.00(1.13)
53	나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해 학업에 집중한다.	4.53(1.06)	4.40(1.06)
16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진로 관련정보를 찾아본다.	4.47(0.64)	3.73(1.16)
51	학교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4.40(0.83)	3.33(1.05)
12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경험을 쌓아간다.	4.33(0.90)	4.47(0.74)
24	대외 활동 지원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다.	4.20(0.77)	3.47(1.30)
25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활용한다.	4.07(1.03)	2.87(1.19)
28	휴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직으로 실무 경험을 한다.	3.87(1.13)	3.13(1.41)
34	목표한 진로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진로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3.80(0.86)	3.60(1.18)
29	창업을 시도해본다.	3.13(1.30)	2.27(1.44)

주. 군집 중요도에 따라 음영을 달리하였으며, 음영이 짙을수록 해당 군집의 중요도가 높음을 나타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활용한다”(차이=1.20), “학교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차이=1.07) 등의 항목도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되었으나 실천 수준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대학

생들이 외부 교육, 진로 서비스, 대외활동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참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일부 진술문은 중요도와 실천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한다”, “전공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등의 진술문도 중요도와 실천도의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기대만큼 전공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전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되 다양한 가

능성을 탐색하며 경험을 쌓아간다”와 같은 항목은 중요도보다 실천도가 오히려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전공 학습 및 자기조절적 학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해당 행동들이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도와 실천도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문별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df*=14). 그 결과 66개 진술문 중 42개에서 중요도가 실천도보다

표 2. 중요도와 실천도 간 차이가 큰 상위 10개 진술문

번호	진술문	중요도 평균	실천도 평균	차이	군집명
20	방학 중 대기업이나 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한다.	4.20	2.80	1.40	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
25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활용한다.	4.07	2.87	1.20	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
51	학교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4.40	3.33	1.07	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
18	다양한 대외 활동(공모전, 진로 아카데미, 박람회 등)을 찾아 참여한다.	4.73	3.73	1.00	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
47	계획이나 목표 설정 관련하여 하루, 주, 월 단위로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고 있다.	3.60	2.67	0.93	진로-학업 계획 수립 및 실행
11	직업 체험(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을 통해 선택한 진로가 내 적성과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4.13	3.27	0.86	진로탐색활동 기반 자기이해
29	창업을 시도해본다.	3.13	2.27	0.86	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
19	다양한 교내외 멘토링에 참여한다.	3.93	3.13	0.80	진로탐색활동 기반 자기이해
31	교환학생(어학연수)을 통해 해외 진출 경험을 한다.	3.87	3.07	0.80	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
17	학교 및 학과에서 진행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에 참여한다.	4.07	3.33	0.74	진로탐색활동 기반 자기이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2에 제시된 차이 상위 10개 진술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효과크기(Cohen's d)는 .61~1.33으로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하여 실질적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진술문 20번 '방학 중 대기업이나 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한다.'(차이=1.40, $t=5.137$, $p < .001$, $d=1.33$)와 진술문 25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활용한다.'(차이=1.20, $t=4.294$, $p < .001$, $d=1.11$), 진술문 51번 '학교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차이=1.07, $t=4.675$, $p < .001$, $d=1.21$)에서 큰 효과크기가 확인되어, 외부 서비스 및 기관 활용 행동에서의 인식-실행 격차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진로와 학업 두 영역 모두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지를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은 '진로 실행 자원 지향(내면 자원 기반↔외부 자원 활용)'과 '진로목표 접근 전략(탐색/성찰 중심↔구체화/실행 중심)'이라는 두 차원을 중심으로 총 66개의 진술문이 7개 군집(군집 1. 진로-학업 계획 수립 및 실행, 군집 2. 자기주도적 전공 학습, 군집 3. 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 군집 4. 직업탐색활동 기반 진로 재탐색, 군집 5. 진로탐색활동

기반 자기이해, 군집 6. 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 군집 7. 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으로 범주화되었다. 도출된 개념도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진로목표 선택과 실행에 대한 진로상담 연구와 실제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과정에서 실천하는 행동에 대한 개념도를 살펴보면, 도출된 두 차원은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행동이 내면적 자기조절과 외부 환경 활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진로 실행 자원 지향' 차원에서 내면 자원 기반 방향의 행동들(예, 중간 목표 단계별 달성, 다이어리 작성)은 자신의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조절하여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Heckhausen 등(2010)의 MTD 이론에서 제시한 2차 통제전략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반면 외부 자원 활용 방향의 행동들(예, 방학 중 외부 교육 수강, 대외활동 참여)은 환경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1차 통제전략의 특성을 나타낸다. 주목할 점은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두 전략을 상호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경험을 통해 선택했던 진로를 변경한 적이 있다'(진술문 30)와 같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으로, 이는 홍수현과 최윤정(2018)이 대학생의 진로불확실성 대처 과정에서 확인한 목표 참여와 목표 이탈의 적응적 조절 패턴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탐색/성찰 중심 군집(3, 4, 5)의 실천도가 구체화/실행 중심 군집(1, 7)의 실천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단계론적 진로 발달관점(Super, 1990)이나 탐색을 실행에 선행하는 과업으로 보는 통상적 가정에 비추어 보면, 본 결과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대학생에게서

탐색과 실행이 시간적으로 분리된 위계적 과정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동시적 과정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MTD 이론이 제시하는 목표 참여와 목표 조정의 순환적 결합 관점(Heckhausen et al., 2010)과 부합하는 것으로,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진로목표를 단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탐색과 실행을 병행하며 적응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행동 양식을 행동 수준에서 가시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7개 군집은 자기주도적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행동이 목표 설정과 실행, 성찰, 재구성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Kolb와 Kolb(2005)의 경험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구체적 경험-성찰적 관찰-추상적 개념화-적극적 실험의 순환 과정과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군집 1(진로-학업 계획 수립 및 실행)과 군집 2(자기주도적 전공 학습)가 내면 자원 기반의 구체화·실행 중심 영역에 위치하며 중요도와 실천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전공 학습 자체를 진로 전문성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은모와 최효선(2016)이 내재적 학습 동기가 강화될수록 전공 몰입도가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는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군집 3(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에서 나타난 실패 경험을 성찰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행동은 목표 이탈 이후 재참여를 통한 적응적 자기조절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Heckhausen & Wrosch, 2022). 우예영과 김동일(2020)은 청년 패널 자료를 2SLS로 분석한 결과, 심리적 진로장벽과 진로미결정 간에는 상관이 존재하지만, 심리적 진

로장벽이 진로미결정을 직접 예측하는 인과관계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군집 3(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에 포함된 진술문들은 실패나 좌절을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정보 획득과 전략 수정의 계기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동일한 실패 경험이라도 개인의 자기주도적 역량 수준에 따라 진로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성장 자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군집 7(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에서 자격증 준비, 실무 참여, 관심 분야 동향 파악 등 외부성과 중심의 행동들이 포함된 것은 MTD 이론에서 청년기가 목표 선택과 참여, 통제 전략의 확립이 중요한 시기로 정의된다는 점(Heckhausen et al., 2010)과 연결되며,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라는 발달적 마감기한이 진로 행동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군집들의 행동 양상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발달적 시기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Arnett(2000)이 제시한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이 시기는 진로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고 실험하는 것이 발달적으로 자연스러운 시기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개념도에서 탐색·성찰 중심 행동(군집 3, 4, 5)과 구체화·실행 중심 행동(군집 1, 7)이 하나의 구조 안에 공존하며 순환적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단일한 진로 경로를 고정하지 않고 탐색과 실행을 반복적으로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년기의 발달적 개방성이 이러한 행동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진예민 등(2021)이 한국 대학생들이 높은

경쟁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고 반복적인 진로 발달 경로를 보인다고 밝힌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두 번째로 군집별 중요도와 실천도 분석 결과,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전공 학습과 계획적 학업 관리를 진로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실제로도 높은 빈도로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군집 2(자기주도적 전공 학습)는 중요도와 실천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내면 자원의 기반의 구조화된 행동을 안정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연정과 강현주(2024)의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지수가 높은 학생들이 계획 및 조직화 전략을 포함한 학습전략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활용한다고 보고한 바와 연결하여, 이러한 군집의 행동들이 자기주도성이 높은 집단의 전형적인 실천 패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군집 6(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에서 중요도 대비 실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외부 자원 활용 중심의 행동이 중요성은 인식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와 학업 두 영역 모두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집단임에도 외부 자원 활용 행동에서 일관된 인식-실천 격차가 관찰되었다는 점은, 자기주도성이 모든 영역의 진로 행동을 동등하게 추동하는 단일 기제로 작동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즉, 외부 자원 활용 행동의 실천은 개인의 자기주도적 역량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마주하는 환경적·심리적 진입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는 구조적 장벽과 심리적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결과 양상을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차

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접근성의 구조적 차원이다. 우예영과 김동일(2020)은 한국 대학생들이 진로 정보의 양은 풍부하나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자기주도적 학생들조차 외부 교육·진로 서비스 기회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 제약 및 학업 부담의 구조적 차원이다. 김혜영과 이진형(2021)은 한국 대학생들이 스펙 관리와 학점 취득을 동시에 요구받는 문화적 맥락에서 학업·취업 준비·외부 활동 참여라는 다중 과업을 병행해야 함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시간 자원의 구조적 제약이 외부 활동 참여의 실질적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선발 경쟁 부담 및 심리적 진입 장벽의 차원이다. 김성양(2021)은 진로준비행동의 의도와 실행 간 차이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인식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예측됨을 보고하였으며, 송민선과 정현식(2023)은 코로나19 이후 채용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대학생들이 취업 관련 활동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자기주도적 학생들이 외부 교육 기회나 대외활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면서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면에는 정보 접근성·시간 제약이라는 구조적 차원과 선발 경쟁 부담·심리적 진입 부담이라는 심리적 차원이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군집 3(시행착오 기반 성찰 및 성장)이 중요도와 실천도 모두 중간 수준에 위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성찰적 행동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직접 연결

되기 어려운 특성상 실행/구체화 중심 행동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관리와 즉각적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적 맥락(김혜영, 이진형, 2021)에서 성찰적 행동의 실천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진술문별 중요도와 실천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차이가 크게 난 진술문들이 주로 군집 6(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과 군집 7(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에 속하는 항목들로, 외부 자원 활용과 기관 서비스 이용에 관한 행동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외부 교육이나 진로 서비스의 필요성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 수준이 낮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우예영과 김동일(2020)이 대학생들이 진로준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면서도 실제 준비행동 수준은 낮으며, 이러한 간극이 심리적 진로장벽 인식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연결된다. 또한 MTD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청년기에는 목표 참여 전략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Lechner et al., 2016)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특정 행동의 실행이 제한될 때 자기효능감이나 동기가 높은 학생들도 실천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 군집 2(자기주도적 전공 학습)에 속하는 진로목표추구 행동들은 중요도와 실천도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실천도가 중요도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면 자원 기반의 직접적 학업 행동이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에게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안정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지연과 이기학(2014)이 자기효능감이 인지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임을 확인한 것과 연결하여, 전공 학습 관련 행동에서의 높은 자기효능감

이 이러한 안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기주도적 대학생들이 진로목표추구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식과 실행 간의 격차는 행동의 종류와 자원 활용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내면 자원 기반의 행동에서는 인식과 실행이 비교적 일치하는 반면, 외부 자원 활용 행동에서는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 진로교육 현장에서 이미 잘 실천되는 내적 자기조절 영역보다 인식과 실행 간 격차가 큰 외부 자원 활용 영역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실천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의에 더해,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진로상담 실체에 몇 가지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도출된 66개 진술문과 7개 군집 구조는 개별 학생의 진로행동 유형 진단과 맞춤형 상담 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진술문을 자기보고식 체크리스트나 면담 질문으로 전환하여 초기 상담에서 학생이 어떤 군집의 행동을 주로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 군집에서 인식-실천 격차가 큰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군집 6(진로준비행동 기반 목표 구체화)과 군집 7(진로선택 기반 취업준비행동)에서 확인된 중요도-실천도 격차는 외부 자원 활용 행동의 실천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활용한다’(진술문 25)에서 격차가 컸다는 것은,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접근성이나 예약 절차의 복잡성이 실질적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성양(202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의 실행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학교 차원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군집 2(자기주도적 전공 학습)에서 나타난 전공 학습과 진로목표의 통합적 행동은 진로교육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되기보다 전공 수업, 학습 전략 지도 등 교육적 맥락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군집 2(자기주도적 전공 학습)의 행동들이 가장 높은 중요도와 실천도를 보인 것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이미 자기주도적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근거가 된다. 성은모와 최효선(2016)이 전공 몰입도가 진로결정 수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것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자기주도성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들에게는 이미 잘 실천하고 있는 영역보다 인식-실천 격차가 큰 외부 자원 활용 행동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반면 자기주도성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박은규와 이서정(2018)이 사회적 지지와 환경적 맥락이 진로적응성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것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구조화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주도적 대학生の 진로목표추구 행동을 탐색하고 그 구조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 학교 유형(국·사립, 지방·수도권), 학년, 전공 계열을 고려한 층화 표집을 적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기주도성 수준에 따라 진로목표추구 행동의 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자기주도성이 낮거나 진로목표가 불명확한 집단을 별도로 선별하여 동일한 개념도 방법을 적용하는 비교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회상 기반의 횡단 설계로 진행되었으므로, 진로목표추구 행동이 대학 입학 이후 학년별·시점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요구된다. 예컨대 1학년부터 졸업 시점까지 반복 측정 설계를 통해 군집별 행동의 발달적 궤적을 확인하는 연구는 MTD의 발달적 마감기한 개념을 한국 대학생 맥락에서 검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군집과 66개 진술문을 기반으로 자기보고식 진로행동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진로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발전시키는 도구 개발 연구도 후속 과제로 제안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청년기의 발달적 특성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자기주도적 대학生の 진로목표추구 행동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출된 개념도와 7개 군집은 대학생 진로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진로행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숙, 방은령 (2014).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0(4), 443-467.
- 김기승 (201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위험감수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3), 1054-1060.
- 김성양 (2021). 대학생의 진로개발지원, 진로역량,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225-240.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현우 (2023). MZ 세대 수도권 이동자의 직업가치관 변화와 특징. *월간 KIET 산업경제*, 293, 50-60.
- 김혜영, 이진형 (2021). 청년 취업 스펙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시장경제연구*, 50(3), 1-33.
- 노윤신, 정철영 (2016).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주도적 성향, 진로탐색행동,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2), 55-81.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동혁 (2008). 학습전략검사(MLST;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한국가이던스.
- 박민정 (2021). 온라인 수업의 학습성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수업의 질, 학습몰입의 예측력 탐색. *교육연구논총*, 42(1), 135-162.
- 박민진, 민보경, 이민주 (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MZ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4(4), 121-147.
- 박연정, 강현주 (2024). 대학 신입생 대상 학습전략 하위요인에 의한 학업성취 예측 및 군집 분석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4), 583-602.
- 박은규, 이서정 (2018). 대학생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8(3), 35-56.
- 성은모, 최효선 (2016). 대학교육에서 성적 우수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역량 요인 탐색. *교육공학연구*, 32(2), 427-452.
- 송민선, 정현식 (2023). 코로나19를 경험한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10), 299-308.
- 신정아, 김장희 (2021). 코로나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진로구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8(3), 139-158.
- 우성민, 이진구 (2020). 신입사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직무만족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몰입의 매개효과. *HRD 연구*, 22(3), 33-62.
- 우예영, 김동일 (2020). 심리적 진로장벽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8(2), 203-221.
- 이재창, 박미진, 최인화 (2003). 진로사고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29-550.

- 이지혜 (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 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48(2), 67-92.
- 전미리, 김봉환 (2018).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 모형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성실성·개방성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443-462.
- 장예원, 이영민 (2024). M세대와 Z세대의 직장 선택 인식유형 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9(2), 211-217.
- 진예민, 김다혜, 양수진 (2021).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그릿-열정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집단별 심리특성 및 진로적응성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2), 167-189.
- 최안나, 탁진국 (2021). 직장인의 주도성이 경력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프로틴 경력 태도의 매개효과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조절효과. *지역과 세계*, 45(3), 219-248.
- 최윤정 (2019).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적 개관. *상담학연구*, 20(6), 179-199.
- 홍수현, 최윤정 (2018).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목표 참여, 목표 이탈과 자기 평가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19(6), 155-17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35.
- De Bruin, K. (2011).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Acta Academica*, 43(2), 214-235.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Erlandson, D. A. (1993). *Doing naturalistic inquiry: A guide to methods*. Sage.
- Hasan, L. Z. (2015). *Ready or not: Career readiness informed by the Career Thoughts Inventory* (Senior Research Project No. 181). Southern Adventist University.
- Heckhausen, J., & Wrosch, C. (2022). Commentary: Goal disengagement-past, processes, and future. *Motivation and Emotion*, 46(6), 884-888.
- Heckhausen, J., Wrosch, C., & Schulz, R. (2010). A motivational theory of life-span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17(1), 32-60.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67-75.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Kim, H. Y., & Kim, G. U. (2018). The Effect of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n employment readiness of undergraduat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ducation and Learning*, 7(3), 125-133.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Follett Publishing Company.
- Kolb, A. Y., & Kolb, D. A. (2005). Learning

- styles and learning spaces: Enhancing experiential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4(2), 193-212.
- Lechner, C. M., Tomasik, M. J., & Silbereisen, R. K. (2016). Preparing for uncertain careers: How youth deal with growing occupational uncertainties before the education-to-work transi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5-96, 90-10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incoln, Y. S.,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Jossey-Bass.
- Miles, M.,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Sage.
- Morgan, M. J., & Osborn, D. S. (2025). College career courses and growth toward vocational identity achievement statu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3(1), 73-91.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s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Jossey-Bass.
- Trochim, W. M.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1), 1-16.
- Trochim, W. M. (1993). *The reliability of concept mapping*. In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Vol. 6).
- Vyas, L. (2022). “New normal” at work in a post-COVID world: Work-life balance and labor markets. *Policy and Society*, 41(1), 155-167.
- Wrosch, C., Heckhausen, J., & Lachman, M. E. (2000).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for managing health and financial stress across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5(3), 387-399.

원 고 접 수 일 : 2026. 03. 12

수정원고접수일 : 2026. 04. 14

게 재 결 정 일 : 2026. 06. 01

Career Goal Pursuit Behaviors of Self-Directed College Students: A Concept Mapping Study

Suhyun Hong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Convergence Education Support,
Hallym university

Yoonjung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used concept mapping to explor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pursuing career goals with self-directedne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 with sixteen students scoring high on learning strategies and low 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 final set of 66 statement items regarding career behaviors was sorted for similarity and rated for importance and practice.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cluster analysis yielded a two-dimensional concept map anchored by *Career Implementation Resource Orientation* and *Career Goal Approach Strategy*. Seven distinct clusters emerged: *Career-Academic Planning and Execution*, *Self-Directed Major Learning*, *Trial-and-Error-Based Reflection and Growth*, *Career Re-exploration Based on Job Search Activities*, *Self-Understanding Based on Career Exploration*, *Goal Specification Based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Career Choice*. *Self-Directed Major Learning* was rated as the most important. Findings highlight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to support students' self-directed career development.

Key words : Self-Directed College Students, Career Goal Pursuit Behaviors, Concept Mapping, Motivational Theory of Life-Span Development